

보도자료 (배포) 2018. 1. 4(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됐습니다.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담 당	<총괄>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200-2056, 2057)		
	AI방역상황 및 대응	국조실 농림정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200-2231, 2232)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이정삼, 서기관 김희중 (044-201-2511, 2515)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준비	국조실 교통정책과	과장 정동혁, 사무관 석선영 (044-200-2239, 2240)		
		국토부 공항정책과	과장 나웅진, 사무관 천홍식 (044-201-4328, 4337)		

선제적 AI 차단방역으로 청정 올림픽 이끈다

<AI 방역상황 및 대응>

- ▶ 1.3 포천 산란계 농장 AI 의심신고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 ▶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강원도 반입금지
- ▶ 평창·정선·강릉 소규모 가금농가 예방적 수매·도태 실시
- ▶ 오리의 경우, 3km 방역대내 선별적 살처분을 예외 없는 살처분으로 전환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
- ▶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KLM) △델타항공 이용
- ▶ 항공권 예약사이트. 휴대폰 문자 발송 등 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시전안내 실시
- ▶ 오도착 승객의 신속한 이동지원 위해 터미널간 5분 간격 셔틀버스 운행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 에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2018년 첫 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방안,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 * 참석자: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관세청·경찰청장 등
-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방역상황 및 대응 (농식품부)
- □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남·북 오리농장에서 9건의 AI가 발생한데 이어, 1월 3일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197천수) 관련 상황 및 조치】

- ① (신고 경위) 축주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3 11시). H5형 검출(1.3 19시)
 - * 1.2일 8수, 1.3일 26수 폐사 등 임상 증상 확인
- ② (살처분) 공중수의사 소견에 따라 1.3일 15시부터 500m 이내 2개 농장 긴급 살처분 진행 중(313천수), 1.4일에 3km 이내 16개 농장 살처분 예정(384천수)
- ③ (일시이동중지) 경기도 전역과 포천에 연접한 **철원**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즉시 발동(1.3 15시~1.5 15시, 48시간)
- ④ (추가 방역조치) △3km 이내 농장에 방역본부 인력 16명 추가투입, △거점 소독시설 2개소 추가 설치 △원주·횡성 등 산란계 집중지역 전문가 파견
- □ 현재,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 전면 금지 △소독시설 확대 운영(10→72개소) △소규모 가금
 농가 대상 예방적 수매・도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1.3 기준 평창·정선·강릉지역 7,177수 수매·도태(경기장 주변 3km 이내 완료)
 - 오리에 대해서는 △**농장 정밀검사 강화**(2주 1회→1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도축장별 10% → 30% 정밀검사) △**사육제한 확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 ('17.11) 89호 128만수(전체 698만수의 19%) → ('17.12) 180호 261만수(37%)

- □ 앞으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AI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리의 경우 3km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에서 예외없는 살처분 으로 전환하고, 닭·오리 혼합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의무 미준수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AI가 연달아 발생한 전남도 3개 시·군(나주, 영암, 고흥)에서는 **군·경찰의 협조 하에 오리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제독차량 등을 협조받아 소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이동통제초소 설치 확대 △밀집사육단지 인근 거점 환적장 지정 확대 △사전 신고한 계란 유통상인만 반출 허용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대책 (국토부)

- □ 정부는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을 앞두고 국내외 이용객들이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수용능력은 5,400 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제1여객터미널(T1)을 이용하던 **4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가 **제2터미널로 이전**합니다.
- □ 우선, 이용객들이 제2터미널을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접근 교통망을 확충 ·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존 제1터미널까지 운행하던 KTX와 공항철도를 제2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한편, 공항버스도 T1과 T2에 순차 정차토록 하고, 운행 편수도 일일기준 101편을 늘릴(2,557편→2,658편) 예정입니다.

- □ 특히, 제2터미널 개장 초기 이용객들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항공사·여행사 등과 협조하여 사전안내*를 충분히 실시하고,
 - * 항공권 예약사이트 등을 통한 터미널 이용방법 안내, 휴대폰 문자 발송 등
 -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이용**객들께서 신속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제1・제2터미널간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 또한, 공항운영 뿐만 아니라 보안·세관검사·출입국심사·검역 등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촘촘한 점검과 훈련을 통해 제2터미널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T2 개장에 따른 오도착 여객지원 종합대책

참고

T2 오픈에 따른 오도착 여객 지원 종합대책

□ 추진방향

- ㅇ 오도착 여객에 대한 체계적 대응 준비를 통해 혼선 최소화
 - 공항 도착 이전 "혼선발생 예방대책"부터 도착 이후 "오도착 여객 신속 이동지원"까지 오도착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구 분	추진방향	
	☑ T2 Open에 따른 공항 이용방법 안내 캠페인	
① 사전 홍보 안내 (혼선발생 예방대책)	☑ 공항 출발 전 사전안내	
([[]]	☑ 도로·철도 등 이동경로상 안내체계 수립	
② 오도착 여객 신속이동	☑ 오도착 여객 긴급수송	
지원 (혼선발생 시)	☑ 임시카운터 운영 등 추가대책	

□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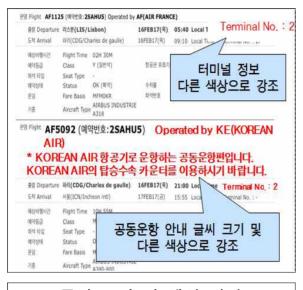
1 사전 홍보 안내

1-1. T2 Open에 따른 공항 이용방법 안내 캠페인

- (기본계획) T2 Open에 따른 공항 이용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적극적인 안내 시행
 - 「각 항공사·터미널 바로 찾아가기」 안내 캠페인 등 집중 홍보
 * (광고 추진일정) 광고제작(9월~11월), 광고송출(12월~)
 - 언론(TV, 일간지, 라디오), 온라인(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항공사· 여행사, 대중교통, 국제 항공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 으로 **대국민 홍보** 실시

1-2. 공항 출발 전 사전안내

- E-ticket에 코드쉐어 /터미널 표기 강화 (글씨 크기 및 색상 강조)
 - 항공권 예약 시 제공하는 e-Ticket에 터미널 정보 표기 강화
 - E-ticket 후면에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정보 표기



글씨 크기 및 색상 변경



E-ticket후면 터미널 안내도 게시

- ㅇ 터미널 안내 사전 알림 서비스
 - **(문자발송) 출발전 2회**(1일 전, 3시간 전) 항공사, 여행사에서 **문자 발송**
 - * (안내사항) T1: 아시아나, LCC, 외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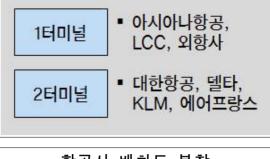
T2: 대한항공, 델타, KLM, 에어프랑스



1-3. 도로·철도 등 이동경로 상 안내체계 수립

- 대중교통(버스, 철도) 내 안내강화
 - (안내방송) 철도, 버스 터미널 접근 시 해당 항공사 터미널 안내 방송
 - (항공사 배치도 부착) 노선 버스, 철도 내부에 항공사 배치도 부착

예) 아시아나항공, LCC, 외항사 이용 여객은 1터미널에서 하차. 대한항공, 델타, KLM, 에어프랑스 여객은 다음 정차역인 2터미널에서 하차.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배치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

항공사 배치도 부착

- 도로표지판 항공사 표기(9월)
 - (도로표지판 안내 강화) 1, 2터미널 분기점, 주행 도로 안내표지판(임시) 및 VMS 등에 대표 국적사 표기를 통해 여객 혼선 최소화







- 네비게이션 터미널별 위치안내
 - 인천공항 검색 시, 여객이 T1 또는 T2를 선택하여 **터미널** 및 **주요** 항공사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사업자와 협의 완료(17.8월)
- T1/T2 구별을 위한 대형 안내간판 및 조형물 설치
 - (터미널외부) 터미널 외벽 대형 안내간판 설치
 - (터미널내부) T1/T2 교통센터, 출발·도착층 등 안내간판 변경 및 신규설치



2 오도착 여객 신속 이동지원

2-1. 오도착 여객 긴급수송

○ 연계교통 운영

- (셔틀버스) T1~T2 여객터미널 간 직통 셔틀버스 5분간격 운행
 - * 셔틀버스는 T1, T2 분리운영에 따른 미싱여객 처리를 최우선 고려하여 수립
- (공항철도) 기존 궤도 교통수단인 공항철도를 이용한 이용객 수송 안내

※ 셔틀버스/공항철도 비교

구 분	셔틀버스	공항철도
소요시간	약18분-22분	약20분
배차간격	5분	12분
이동거리	15km	6.4km
특 징	여객 접근성이 용이	정시성과 이동성 유리

2-2. 임시카운터 운영 등 추가대책

- (임시 카운터 운영) 제1여객터미널에 오도착 여객 신속 탑승지원을 위해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한시적 설치 운영
- (임박승객 지원) I'm late 카드(출국임박 여객카드) 배포 및 자가용을 이용한 오도착 여객 발렛파킹 우선권 지급(3개월 한시 운영)
- (T2 개장 이전 T1 출국여객 지원) 오픈초기 1일 약 2,000여명이
 T1 주차장 이용(출국) 후 T2 도착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T2→T1
 주차장 직통 연계버스 운영(약 2주간)

※ (현장안내강화) 셔틀버스 정차장, 철도 승차장, 주차장 등 주요 지역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이동교통수단 안내(T1 66명, T2 36명)

